

# 現代帝國主義論小考

—J.A. 홉슨의 理論을 중심으로—

呂 井 東\*

目 次

I. 序 論	의 問題
II. 「J.A. 홉슨」의 「帝國主義論」	4. 植民地擴張과 海外投資問題
III. 「J.A. 홉슨」理論에 대한 反論	5. 帝國主義의 動因으로서의 金融的 利害의 問題
1. 超國家的 帝國主義의 問題	6. 帝國主義의 動因과 民族主義
2. 不連續性理論의 問題	
3. 國內經濟의 弱化和 높은 利子率	IV. 結 論

## I. 序 論

帝國主義는 대외팽창의 「政策」이나 그 정책을 유발하는 정치적, 경제적 「體制」로 이해하기도 하고 支配나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人種觀, 價値觀, 信念 등으로 이해하기도 하며 오늘날에는 先進強大國과 第3世界간의 南北關係를 제국주의로 표현하기도 한다.

제국주의의 動因을 어떤 要因에다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제국주의이론은 여러가지로 분류된다. 경제적 요인에 중점을 두는 帝國主義經濟理論, 사회심리적 요인에다 중점을 두는 帝國主義社會心理理論, 권력정치적 요인에다 중점을 두는 帝國主義權力政治理論, 그의 여러가지 이론 등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는 역사상 일정단계에 있었던 「歷史的」현상이라고 이해함으로써 「不連續性理論」을 전개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역사상 보편적으로 있었던 「超歷史的」현상이라고 이해함으로써 「連續性理論」을 전개하는 이도 있다.

해석이나 이론의 여하를 막론하고 제국주의는 일반적으로 賞讚이나 福音의 뜻으로서가 아니라 非難이나 罵倒의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1874년 디스레리가 선거강령으로서 「帝國聯合」이라는 新基調를 제창한 이래 1898년까지 잠간동안 영국여론이 제국주의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副教授

란 用語를 英國國民의 福音으로 생각했던 것은 예외적인 것에 불과하다.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古代 이집트, 페르샤, 아시아아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로마帝國이 세계제패를 꿈꾸고 있었던 당시도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없었다. 쾨브너와 슈미트(Koebner and Schmit)의 연구에 의하면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1830년대에 불란서에서 확립된 政體를 영국인이 호칭한 데서 시발되었다고 한다.<sup>(1)</sup> 「도바」海峽의 건너편에서 건설한 루이·나폴레옹의 브르죈帝國을 영국인은 제국주의라고 지칭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루이·나폴레옹이 쿠데타로 창시한 第2帝政期(1852~1870)는 그의 독재권하에서 金融·産業主義를 강화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資源獲得을 목표로 식민지팽창을 위한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여 그가 「세단」에서 1870년 9월 프로시아軍隊에 붙잡힐 때까지 불란서本土의 3배나 되는 식민지를 획득한 것을 본 영국인들은 그 佛蘭西政體를 가리켜 보나파르트帝國主義라고 공공연히 비난하였다. 이리하여 19세기 中葉以後에는 「보나파르티즘」과 「帝國主義」를 同意語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제국주의라고 비난하면서도 루이·나폴레옹의 강력한 金融政策과 海外膨脹政策은 영국 자유주의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쳐 欽慕의 대상으로 된 것도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급기야 1874년에는 植民地에 대한 보호관세와 共同防衛로서 統一帝國을 형성해야만 한다는 영국의 디스레리保守黨의 選舉綱領인 「帝國聯合」(Imperial Federation)이라는 新基調를 提唱하기에 이르렀다. 이 新基調는 帝國과 자유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併存할 수 있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帝國聯合」이라는 口號가 디스레리反對派로부터 당파적 비난과 罵倒의 표현으로 利用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를 자유와 병존할 수 있다는 뜻으로 復權하려는 움직임이 강렬하여 1898년까지는 많은 자유당원도 帝國主義者임을 자처하여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당파적 罵倒로부터 일변시켜 國民의 福音으로 삼았던 것이다.<sup>(2)</sup>

그러나 보어戰爭(Boer war 1899~1902)의 결과로 파생된 英國國民의 환멸로 말미암아 국민적 복음이라고 생각되었던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非難과 罵倒의 표현으로 되돌아 갔다. 보어전쟁은 영국민으로 하여금 英帝國主義에 대한 動機와 해석에 대한 새로운 기초를 제공해 준 셈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論客이 바로 J.A. 홉슨이다.

홉슨은 1902년 그의 力著 「帝國主義論」을 출간함으로써 지난날 영국인이 생각했었던 바와 같은 제국주의의 뜻은 전도되어 疑惑과 非難이 내재한 새로운 뜻으로의 轉化를 시현하

(1) R. Koebner, and H.D. Schmidt, *Imperialism: The Story and Significance of a Political World, 1840-1960*, 1964, p.1.

(2) *Ibid.*, p.221.

였다.<sup>(3)</sup>

제국주의라는 용어가 1830년대부터 생겨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디스레리가 선거강령으로 「帝國聯合」이라는 口號를 내건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직도 理論的인 論爭의 概念으로 등장하지는 않았다. 본격적으로 이론적인 논쟁적 개념으로 등장한 것은 홉슨이 「제국주의론」을 출간한 이후의 일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학문상의 논란이 더욱 격렬하게 劇化된 것은 1917년 레닌이 저술한 「最高段階로서의 제국주의論」이 출간된 이후부터 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레닌의 帝國主義論에 대한 拙見<sup>(4)</sup>은 이미 발표된 적이 있으므로 本稿에서는 다만 홉슨의 이론만을 고찰하려고 한다.

홉슨이 「帝國主義論」을 出刊한지도 70년이 넘었다. 그동안 그의 이론은 학문상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이론은 贊論도 많았지만 反論도 많았다. 本稿의 목적은 홉슨의 제국주의이론을 概觀하고 그 이론에 대한 反論을 제기해 보려는데 있다. 그의 여러가지 命題에 대한 反論을 제기하되 그 反論중에서도 특히 帝國主義의 動因에다가 역점을 두기로 한다.

## II. 「J.A.홉슨」의 「帝國主義論」

홉슨은 그의 一生동안 크고 작은 50餘種의 저서를 내놓았다.<sup>(5)</sup> 이들 저서에서 經濟學, 政治學, 倫理學에 대한 광범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의 이론은 경제적으로는 過剩貯蓄과 過少消費의 理論, 정치적으로는 民主主義理論, 倫理的으로는 人道主義理論을 제창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은 그의 帝國主義理論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그대로 떠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倫理的으로 홉슨이 철저한 人道主義者였음은 그의 親友 브라일즈포드(H.N. Brailsford)가 「보기 드문 同情的인 기질과 인류사회의 의의를 透視하고 창조적 洞察力을 갖는 위대

(3) 홉슨은 「帝國主義論」을 저술하기 이전에 벌써 1888년에 영국지배의 확대로서 영국무역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擴大論者들의 주장을 공격하면서 「무역은 國旗에 따른다」는 견해의 잘못을 貿易上의 숫자를 들어 증명하였다. 또한 그는 1900년에 *The War in South Africa, Its Cause and Effects*라는 책을 저술하여 南阿事件에 대한 新帝國主義의 適用을 비난함으로써 결국은 챔버린의 정책에 대한 彈劾을 한 셈이다. ……결국 홉슨은 영국지도자들에게 제국주의에 대한 疑感의 念을 품도록 하였던 것이다(*Ibid.*, pp. 226-227).

(4) 레닌의 이론과 그 批判에 대해서는 拙稿 「帝國主義經濟理論에 대한 理論的 檢討」, 『經濟論集』(第VII卷 第3號 1968.9)과 拙稿 「段階로서의 帝國主義論에 대한 理論的·實證的 檢討」, 『國際政治論叢』(第九輯 1969), pp.72-104, 參照.

(5) E.E. Memmers, *Hobson and Underconsumption*, 1956, pp.144-148, Bibliography 參照.

한 道德家였다」<sup>(6)</sup>고 평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홉슨이 所得의 惡分配를 지양해야만 할 社會改革論을 주장한 것은 그가 인도주의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 없다.

홉슨은 열강국들이 植民地擴張을 「文明化의 使命」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변호하고 있으나 실은 그것은 「국민중의 어느 계급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국민전체의 입장에서는 결코 合理的일 수는 없다」<sup>(7)</sup>고 말하여 제국주의의 非人道性和 非民主性を 설파하고 「모든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적절히 조정된 정책을 채택하는 知性的인 자유방임적 민주국가에서는 제국주의가 조만간 廢棄될 수 있다」<sup>(8)</sup>고 말하여 민주주의의 眞價를 강조한다. 또한 그는 「英國이나 다른 나라의 국민이 참다운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미심쩍다」<sup>(9)</sup>고 말하여 帝國主義終焉에 회의를 느낀 것도 사실이기 는 하나 「국가의 外交政策이 광범한 人民의 의사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면 구제의 희망은 없다」<sup>(10)</sup>고 말하여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갈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갈구는 「민족이 그의 權力에 대한 위협스러운 강탈을 배제할 수 있는 능력과 민족자원을 민족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能力은 민주국가의 정치적 및 경제적 현실로 될 수 있는 민족적 지성과 민족적 의사의 교육에 의존된다」<sup>(11)</sup>고 말한 것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홉슨은 「知性的인 진보적 국민의 叡智」에 희망을 걸고 있는 人道主義者요 民主主義者인 것이다.

홉슨은 비난과 惡罵의 대상인 제국주의를 경제적으로 處方하려는데 있어서도 그의 倫理觀과 政治觀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홉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帝國의 擴張이 진보적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함은 잘못이다. 새로운 市場과 投資區域의 개발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은 산업의 진보가 아니라 國內에서 상품과 자본흡수를 방해하는 바의 消費力의 잘못된 配分이다. ……生産과 消費의 정상적인 경제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過剩貯蓄傾向이 있는 과잉한 富를 형성한다. 만약 정치력과 경제력의 運用을 변혁하여 잉여소득을 그 소유자로부터 移轉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高率의 賃金を 지불하든지 租稅로서 사회에 轉入시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서든 저축대신에 소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잉저축을 처리할 수

(6) H.N. Brailsford, *The Life Work of J.A. Hobson*, 1948, p.3.

(7) J.A. Hobson, *Imperialism: A Study*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4), p.47.

(8) *Ibid.*, p.47.

(9) *Ibid.*, p.360.

(10) *Ibid.*, pp.360-361.

(11) *Ibid.*, p.362.

만 있다면 海外市場이나 海外投資區域을 쟁탈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sup>(12)</sup> 이와 같이 홉슨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그 自體가 아니라 자본주의체제 내에서의 어떠한 不調整의 결과로 보고 帝國的 擴張은 불가피한 것도 아니요 剩餘를 처리하는 적절한 方法도 아니며 잉여는 購買力의 잘못된 配分이므로 그 해결책은 購買力의 증대와 잉여저축의 배제를 위한 政治經濟改革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政治·經濟改革이란 결국 人民에 의한, 人民을 위한, 人民이 감독권을 행사한 정치·경제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홉슨의 「제국주의론」의 概要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홉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帝國主義의 가장 중요한 經濟的 要因은 투자와 관계가 있는 勢力이다」.<sup>(13)</sup> 「英國의 외교정책은 주로 有利한 投資市場을 얻으려는 투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영국은 海外로부터 받는 貢納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국민으로 되어갔다. 이 貢納을 받는 계급은 그들의 私的投資의 분야를 확장하고 그들의 기존투자를 보호 및 개선하기 위해서 公共政策, 公共財力, 公共兵力을 사용하려는 자국이 漸增하게 되었다」.<sup>(14)</sup> 「제국주의란 자본가가 국내에서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없는 商品과 자본을 처리할 海外市場이나 海外投資를 추구함으로써 그들의 過剩한 富를 배출할 通路를 확장하려는 産業大統制者の 노력이다」.<sup>(15)</sup> 이와 같이 홉슨은 마르크스主義者가 아니면서도 제국주의적 확장의 근원을 해외투자의 필요성과 투자계급의 산물이라고 진단한 점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와 흡사하다. 그리고 그는 帝國的 擴張은 전국민의 이익에서가 아니라 오직 投資階級의 특수이익의 產物 말하자면 제국주의의 中心的인 지도적 세력은 전반적인 金融業者의 힘에 의존하기 때문에 金融業者들 모든 분야에 걸쳐 제국주의정책의 主要決定者로 간주하였던 것이다.<sup>(16)</sup>

叙上한 바를 요약하면 홉슨은 제국주의의 근원을 자본주의체제내에서 不調整의 결과로 생기는 經濟的 要因에서 찾고 있으며 그것은 자본주의산업의 건전한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過剩貯蓄과 所得分布의 불평등에서 연유된 것으로 간주했으며 제국주의의 추진세력은 金融業者임을 강조하고 있다.

홉슨은 社會病理學的 견지에서 제국주의의 有害性を 광범하게 다루고 있다.<sup>(17)</sup> 그는 제국주의의 擴張政策은 필연적으로 軍國主義를 수반하며 군국주의는 軍備의 증대를 필요로

(12) *Ibid.*, pp.85-86.

(13) *Ibid.*, p.51.

(14) *Ibid.*, p.53-54.

(15) *Ibid.*, p.85.

(16) *Ibid.*, p.48, p.56, p.59.

(17) *Ibid.*, pp.124-152 參照.

하는 2重의 비용을 소모하게 되고 또 군국주의는 후진국에 대한 軍事的 寄生을 피하려고 전쟁을 유발하고 그 결과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국민의 자유와 시민적 道德을 파괴하고 文明의 진전을 저지하는 결과로 되므로 제국주의정책은 민주적제도에 敵對인 것이며 자유와 平等과는 不俱載天의 적이라는 것이다.

홉슨은 1870년대 이래 西歐에서 生成한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實相을 보고 그의 제국주의론을 서술하였다. 실로 1870년 이후의 西歐列強들의 帝國的 擴張은 대단한 추세였다. 1902년 제국주의론을 저술할 당시 홉슨은 곧 다투어 제국주의 열강간의 피비린내나는 충돌(제1차대전)을 예상못하고 제국주의는 아직 그 生涯가 시말된 幼年期에 불과하고 앞으로는 中國과 같은 최대식민지를 共同植民地化하거나 共同分割하는 超國家的 제국주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홉슨의 견해에서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中國의 운명이 不吉한 듯하다. 열강들의 小康狀態나 躊躇스러움이 불식될 것을 예상하기는 쉽다. 또는 모험적인 이윤추구집단이 축적하기 어려운 大貯藏所(中國)를 교란하는 분명한 위협을 피하려고 열강국정부들은 通商條約, 租借地, 鐵道 및 鑛山의 이권을 교묘한 방법으로 추진시켜 그 결과 정치적 간섭의 과정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sup>(18)</sup> 그런데 홉슨은 초국가적 제국주의의 등장을 제지할 만한 中國人의 효과적인 저항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울고 있다.<sup>(19)</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가 홉슨理論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홉슨이 의미하는 非難과 惡罵의 대상인 제국주의는 불가피한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홉슨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安全守則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本節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잉저축을 처리하여 貯蓄 대신에 소비를 향상시키고, 노동자에게 高率의 임금을 지불하든지 租稅로서 사회에 전입시키든지 하여 잉여소득을 소유자로 부터 移轉시켜 本國市場의 확대를 꾀함과 동시에 해외투자나 해외투자구역을 쟁탈할 필요가 없도록 할 사회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개혁추위는 勞動組合主義와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과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이다.<sup>(20)</sup>

다음은 投資家階級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政府에 요청하는 권리를 국민은 절대적으로 否認하기 위하여 知性的인 진보적 국민의 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지의 동원에 대해서는 홉슨도 회의적이긴 하였지만 어떻게 되려든 민족적 知性과 민주적 意思의 教育에 기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sup>(21)</sup>

(18) *Ibid.*, p.224.

(19) *Ibid.*, pp.310-311.

(20) *Ibid.*, p.90.

(21) *Ibid.*, p.362.

마지막으로 홉슨은 세계경제의 번영을 위해서는 후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후진국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선진국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는 세계문명의 安全과 進歩를 제1목적으로 하여 선진국의 특수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말 것. 둘째는 후진국민족의 자질을 改善向上시킬 것. 세째는 위의 두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선진국은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文明社會全體의 組織의 代表에 의해서 결정할 것 등을 들고 있다.<sup>(22)</sup>

總括하건대 홉슨은 제국주의의 終焉을 민주주의 세력의 등장에 의한 민주사회주의적 改革으로 달성되는 민주적 福祉社會의 건설에 기대하였던 것이다.

### III. 「J.A.홉슨」理論에 대한 反論

#### 1. 超國家的帝國主義의 問題

前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홉슨은 1902년 당시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는 그 生涯가 시발된 幼年期에 불과하고 앞으로 列強國들은 中國과 같은 최대의 식민지를 共同植民地화 하거나 공동분할하는 超國家的 제국주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런데 역사의 實際는 홉슨이 예상한 超國家的 帝國主義가 아니라 그가 예상하지 않았던 피비린내나는 제국주의열강간의 제1차대전 결과로 세계권력구조의 再編現象을 示顯하였다. 제국주의는 1902년 당시 幼年期가 아니라 오히려 解體의 兆朕을 孕胎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1차대전 이후 식민지의 대항세력은 강렬해졌고 선진자본국가의 내부에서도 민족주의적 압력의 성장으로 국민소득 분포의 수정경향이 나타났고 거기에다가 非資本主義社會(소련)가 세계의 무대에 등장함에 따라 홉슨이 예상한 바와 같은 超國家的 제국주의 현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홉슨이 의미하는 제국주의적 경향이 앞으로 더 확대되기는 커녕 쇠퇴할 조짐을 나타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의 실체는 20세기 초기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가 이제 막 시발한 유년기에 불과하다는 홉슨의 예견을 전도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제국주의 구조를 일변시켜 反帝國主義의 對抗勢力을 등장시켰던 것이다. 특히 제2차대전 이후는 제국주의의 역사를 통하여 어떠한 제국주의 경제이론 연구자도 예상할 수 없었던 홉슨이 의미하는 바와 같은 植民地는 解體되고 새로운 양상의 국제질서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 2. 不連續性理論의 問題

홉슨은 1870년 이후의 제국주의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不連續理論에 근거하고 있음을

(22) *Ibid.*, pp.227-232.

볼 수 있다. 홉슨은 1870년이후에는 식민지의 경제적 착취를 위해서 지난날과 같은 정치적 지배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당시의 자유무역주의적 제국주의는 지난날 政治力이 介在했던 重商主義的 帝國主義와는 질을 달리하여 오직 경제적 利害로서만 판가름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1870년이후의 제국주의적 양상은 기왕의 사태와는 다른 특수한 것이었고 그 動機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1870년이후의 제국주의발전은 連續的인 것이 아니라 不連續的인 특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참으로 1870년대 이후의 제국주의 발전의 動機와 政策은 지난날의 것과 質的으로 다른 不連續的인 것이었을까?

지난 數世紀동안 列強國이 식민지를 획득하려는 動機는 경제적 동기와 정치적 동기가 밀접히 혼합된 것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윤의 욕망보다도 政治的 軍事的 산물이었기도 하다. 18세기에 있었던 東方地域에 대한 투쟁은 動機面에서 본다면 經濟的 경쟁이라기보다 정치적 경쟁의 소산이었다. 1763년 과달로우프(Guadeloupe)보다 캐나다를 가지려고 결정한 영국의 처사는 純經濟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식민지보다는 軍事上의 안전과 威信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홉슨에 의하면 이러한 정치적 군사적 충동은 1870년 이후 전개된 제국주의를 설명하는 데는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1870년이후의 제국주의는 그 이전의 제국주의와 對比컨데 정치적 군사적 충동은 별로 쓸모없는 非連續的인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홉슨의 非連續性理論과는 달리 필드하우스(Fieldhouse)는 제국주의 발전에는 아무런 연속성의 단절도 없었고 단지 世界情勢의 일시적 변동에 따라 方法上의 短期的 변화가 있었을 뿐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實證하고 있다.<sup>(23)</sup>

1840년부터 1871년동안에 영국이 획득한 식민지는 1871년이후 30년동안에 획득한 식민지와 비견할만한 것이었다. 1871년이전에 식민지를 획득한 동기와 1870년이후에 획득한 동기는 홉슨이 생각한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다. 퀸스랜드(Queensland)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내부확장의 결과였고 英領코롬비아는 미국과의 대립의 결과였고, 기타의 地域 이룰테면 英領印度의 邊境에 있는 펀자브(Punjab), 신드(Sind), 베라르(Berar), 오우드(Oudh) 南部버마라든가 希望峰 邊境에 있는 바수토랜드(Basutoland), 그리퀼랜드(Griqualand), 트란스발(Transval)이라든가 西아프리카에 있는 기존무역기지의 주변에 있는 작은 지역들은 既存帝國이 항상 그 국경을 확장해 나가려는 결과의 산물이다. 이것은 영국의 經濟的 擴張政策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그 지역의 軍事的 安全, 行政的 能率, 土着民族의 보호

(23) D.K. Fieldhouse, "Imperialism: An Historiographical Revision," *The Economic History Review*, Vol. XIV, No. 2, December 1961, pp.201-202.



를 위한 요구 등에서 파생된 산물이었다. 마찬가지로 흡슨이 圖表에서 提示하고 있는 1870년 이후에 획득한 영국의 식민지는 정치적 경쟁과 정치적 안정과 國家威信의 소산이었던 것이다(이에 대한 實證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후술하는 「제국주의의 동인으로서의 金融的 利害의 問題」項을 참조하기 바람). 이렇게 볼 때 1870년 이후에 발전한 제국주의도 동기에 있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제국주의와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過程의 連續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윌드하우스가 말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새로운 요소는 前例없는 것도 아니며 분명히 純粹經濟的인 것도 아니며 본질적으로는 18세기의 독특한 태도와 慣習으로의 復歸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경제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고려의 優先과 국가안보나 군사력이나 國威에 대한 관심들이 새로운 상황의 뚜렷한 것이었다」.<sup>(24)</sup>

帝國主義一般理論을 수립하는 데는 帝國主義의 概念을 歷史的으로 파악하기 보다 超歷史的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sup>(25)</sup> 제국주의의 동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 共通分母를 超歷史的인 입장에서 찾는다면 경제적 요인이라기 보다 정치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sup>(26)</sup> 이렇게 볼 때 제국주의는 그 動機에 있어서나 개념에 있어서나 그것을 규명하려면 不連續性理論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連續性理論을 전개하는 것이 옳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3. 國內經濟의 弱화와 높은 利率의 問題

흡슨은 低開發地域으로의 자본수출은 높은 利率을 기대해서 수행되었다는 소박한 模型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형은 1953년에 출간된 케안크로스(A.K. Cairncross)의 「國內投資와 海外投資: 1870~1913」라는 책 속에서 조리있게 反駁당하고 있다. 케안크로스에 의하면 美國,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남아프리카 등지에 투하된 英國資本은 영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一次的 原料를 생산한 결과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국의 海外投資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국경제의 一次部門에 투자한 것과 같은 결과라는 것이다. 만약 영국자본가가 높은 利率을 기대해서 海外에 투자하였다면 利率이 높은 「危險投資」에 쏟렸을 텐데 총해외투자에 비해 「위험투자」의 비율은 극히 적었다는 것을 레펠트(Lehfeldt)의 統計數字를 들어 증명하고 있다.<sup>(27)</sup> 영국의 투자자들은 어느정도 이자율을 고려한 것

(24) *Ibid.*, p.204.

(25) 이에 대해서는 拙稿 「段階로서의 帝國主義論에 대한 理論的·實證的 檢討」, 『國際政治論叢』(第九輯 1969), pp.72-104 參照.

(26) 이에 대해서는 拙稿 「帝國主義經濟理論의 批判」, 『經濟論集』(第Ⅶ卷 第1號 1968.3), pp.157-161 參照.

(27) Quoted by D.K. Fieldhouse, *Op. cit.*, pp.198-198.

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投資의 安全性을 먼저 고려한 것이 분명하다.

홉슨은 자본수출은 國內經濟를 악화시키고 노동자계급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킨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歷史的인 실제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케안크로스의 저서에서는 영국의 海外投資는 영국生産物에 대한 需要를 창조하였고 國內외의 이윤수준과 賃金水準을 유지하였고 失業水準을 낮추었다고 설득력있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交易條件이 영국에不利할 때 해외투자율이 가장 높았던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1914년 이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不況으로 부터 영국경제를 구출해낸 것은 海外投資였다고 결론을 내리 홉슨模型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sup>(28)</sup> 이렇게 볼 때 영국의 資本輸出은 인위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려는 자본가의 이익에서가 아니라 低開發地域에서의 적절한 필요와 영국경제의 不況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과정의 中心에서 周邊으로 전과되어 나가는 수단의 구실을 했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오늘날의 선후진국간에 벌어지고 있는 經濟協力이나 多國籍企業의 추세를 보면 그것은 더욱 분명해진다.

#### 4. 殖民地擴張과 海外投資問題

홉슨은 帝國主義論의 서두에서 1874년부터 1900년까지 영국이 취득한 식민지와 人口表를 제시하여<sup>(29)</sup> 1870년이후의 식민지확장상을 설명하고 있다.

홉슨은 「과다한 工場에서 생산되는 過剩生産과 국내에서 건전한 투자대상을 발견할 수 없는 과잉자본을 영국, 독일, 화란, 불란서 등은 점차로 經濟資源의 보다 많은 부분을 해외에 있는 既存政治領域으로 投入했으며 그 다음에는 새로운 영역을 병합하기 위한 정치적 확장정책을 충동질하였다」<sup>(30)</sup>고 말한다. 이와 같이 홉슨은 제국주의를 先進強大國內의 經濟的 病弊에서 결과하는 外的 症相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확장은 過少消費로서 결과하는 과잉자본을 배출하기 위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홉슨은 식민지확장과 海外投資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統計數字를 제시하고 있다. 그의 統計에 의하면 1871년부터 1891년까지 영국이 취득한 식민지가 넓어로는 475만 4천 平分厘와 人口로는 8천 8백만명이 증가하였고<sup>(31)</sup> 1862년부터 1893년까지 영국의 해외투자는 1억 4천 4백만 파운드에서 16억 9천 8백만 파운드로 증가하였다.<sup>(32)</sup> 이러한 통계로 부터 홉슨은 「영국의 近代外交政策은 주로 수치맞는 投資市場을 얻기위한 투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sup>(33)</sup>라고 말함으로써 식민지확장과 해외투자와의 밀접한 상관관

(28) Quoted by *Ibid.*, p.198.

(29) J.A. Hobson, *Op. cit.*, p.17.

(30) *Ibid.*, p.80.

(31) *Ibid.*, p.18.

(32) *Ibid.*, p.62.

(33) *Ibid.*, p.53.

계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확장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홉슨은 兩者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해준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併合되지 아니한 「海外地域」과 병합된 「植民地」에 대한 투자중에서 새로 획득한 식민지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개발지역에 투자된 것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恣意的인 가정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투자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홉슨의 恣意的인 가정은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홉슨의 제국주의 이론의 근본적인 誤謬인 것이다.

홉슨은 그의 「帝國主義論」에서 무역에 대한 地理的 分布는 어느정도 세분해서 검토하고 있으나 해외투자에 대한 地理적 분포에 대해서는 별로 세분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는 투자의 地理적 分布는 단지 「海外」, 「植民地」 「美國」 「其他」로만 분류했을뿐 별로 세분해서 검토하지도 않고 영국의 해외투자의 대부분은 1870년 이래 새로 획득한 아시아 아프리카식민지에 투하되었다는 恣意的인 가정을 앞세우고 있다.

이러한데 착안하여 너시(Nurkse) 교수는 만약 홉슨이 무역에 대해서 地理的 分布를 명시한 바와 같이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地理적 분포를 명시하였다면 英國資本이 원시적 熱帶經濟地域에는 별로 투자되지 않고 주로 大英帝國의 内外에 있는 新開拓地에 투자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발견했을 것이다<sup>(34)</sup> 라고 論評한 바 있다.

너시교수의 論評은 1911년에 발표한 페이쉬(Paish)의 논문속에 나타난 數値에서 결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sup>(35)</sup> 페이쉬의 논문에 의하면 당시 영국투자는 美國에 6억 8천 8백만 파운드, 南美에 5억 8천 7백만 파운드, 캐나다에 3억 7천 2백만 파운드, 南아프리카에 3억 5천 1백만 파운드를 각각 투자하였다. 그리고 보니 영국투자의 대부분은 이들 지역에 투하된 셈이다. 이에 반하여 西아프리카에는 겨우 2천 9백만 파운드, 마라카海峽과 말레이지아에는 2천 2백만 파운드 그리고 모든 잔여식민지에는 3천 2백만 파운드가 투자되었을 뿐이다. 이들 열대식민지지역에 투자된 수치는 결코 미미한 것은 아니며 어느 지역에서는 利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하여 홉슨의 命題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새로 병합된 것이든 아니든간에 열대식민지지역에 투자된 總額은 총해외투자액에 비한다면 極少額에 불과하다. 그리고 1911년 직전의 몇해 동안도 이 지역에 투자된 것은 극소액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영국의 새로운 투자영역의 필요가 절실하여 이들 지역을 획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때문에 홉슨이 온갖 知慧를 다 동원하여 만들어 낸 그의 가설은 否定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제국주의가 필연적인 경제적 산

(34) Quated by D.K. Fieldhouse, *Op. cit.*, p.199.

(35) Quated by *Ibid.*, p.199.

물이라는 그의 이론의 全基礎도 함께 否定되지도 하다.<sup>(36)</sup>

이렇게 볼 때 윌드하우스가 말한 바와 같이 「참으로 솔직히 말하면 홉슨은 知的 魔術을 부렸던 것이다. 그의 경제이론이 참으로 정당하다는 信念下에 그의 존재주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임으로써 그가 인용한 두가지 통계(식민지확장과 해외투자의 통계)는 一方(해외투자)이 他方(식민지병합)의 원인인 듯한 幻想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sup>(37)</sup>

##### 5. 帝國主義의 動因으로서의 金融的 利害의 問題

제국주의확장의 동기에 관한 홉슨이론중에서 빼놓을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金融的 利害와 帝國主義者利害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것이다.

홉슨도 英國帝國主義的 확장의 原動力이 금융적 이해만이 아니라 探險家, 宣教師, 技術者, 愛國的 壓力集團, 帝國的 政治家들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만일 제국주의적 확장에의 衝動이 자본가의 경제적 이해에서가 아니라 어떤 이상주의나 野望이나 國家威信 등으로 만족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면 자기의 中心命題는 지탱할 자리가 없어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교묘하게 말하고 있다. 「金融이 정치가, 군인, 慈善家, 무역가들을 愛國的인 세력으로 만든다. 이들이 갖는 擴張에 대한 열망은 비록 강력하고 진지하기는 하나 不規則的이고 盲目的인데 반하여 金融的 利害는 제국주의가 구실을 다하는데 필요한 集合성과 분명한 計算性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야심적인 정치가, 개척적인 軍人, 열성과잉적인 宣教師, 전진적인 무역상 등은 제국주의적 확장의 시발을 제안하거나 내디딜 수도 있으며 어느정도 새로운 前進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愛國的 輿論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뭐니뭐니해도 역시 최종적인 제국주의의 원동력은 金融的 결정에 달려있다.<sup>(38)</sup>

이러한 홉슨의 叙述는 분명히 그의 中心的 命題를 지탱하기 위한 의도에서 연유된 교묘한 論述方法이 아닐 수 없다. 윌드하우스는 「홉슨은 이상과 같은 교묘한 논술방법으로 제국주의와 투자가 사이의 분명한 관계를 역전시켜 버렸다<sup>(39)</sup>」고 말한다. 실로 홉슨은 양자간의 상호관계를 역전시켰던 것이다.

홉슨이 말하는 1870년이후의 제국주의의 새로운 요소는 前例없는 것도 아니요 순수히 金融的 利害에서 胚胎된 것만도 아니다. 19세기초 自由貿易帝國主義時代에는 식민지문제를 정치나 安保問題와 분리하여 순전히 경제적 이해만으로 결정되는 듯한 양상을 보인 것

(36) *Ibid.*, p.199.

(37) *Ibid.*, p.190.

(38) J.A. Hobson, *Op. cit.*, p.59.

(39) D.K. Fieldhouse, *Op. cit.*, p. 197.

도 사실이다. 그러나 19세기 末에 와서는 경제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앞서서 순전히 경제적 번영만이 아니라 국가안보, 군사력, 國威 등에 대한 관심이 앞면에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그 이유는 1870년 이후의 歐洲은 다시 군사적 대립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普墺戰爭, 普佛戰爭 이후 歐洲에는 새로운 동맹체제가 등장하여 모든 정치가들은 새로운 歐洲均衡政治속에서 군사력을 國威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불가피하게 重商主義的 帝國主義의 태도로 복귀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식민지를 경제적 이득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國威向上과 軍事力增強의 대상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비스마르크가 1884—5년에 별로 경제적 이득이 없는 西아프리카와 南아프리카 그리고 뉴기니아의 일부 지역에 대한 公式的 統治를 선언한 행동은 분명히 국제적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제국주의의 새로운 국면이었다. 뿐만 아니라 將來性없는 사하라沙漠을 불란서가 병합한 것은 경제적 동기라기 보다 군사전략과 더불어 경쟁정신이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sup>(40)</sup> 日清戰爭(1884~5)과 日露戰爭(1904~5)에 의해서 수행된 日本의 제국주의도 日本은 그때까지 獨占資本主義段階에 있지 아니했으므로 君主制國家戰略, 軍事的 權力, 官僚制 등이 제국주의 추진의 원동력으로 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露西亞의 경우도 日本과 마찬가지로였다.

제국주의정책은 未開發地域 뿐만 아니라 工業地域도 대상으로 삼았고 그 목적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에서 연유된 예가 허다하다. 독일에 있어서 벨지움은 영국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기지로써 중요한 것이었고, 영국으로서는 바그다드가 아시아방면의 交通路를 러시아와 독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나의 이익에서가 아니라 남의 不利益이 결과적으로는 나의 이익으로 된다는 論理는 等價的인 計算原則에 입각한 경제적 동기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에지프트나 南阿聯邦에 대한 영국의 제국적 지배는 분명히 金融家의 이해에서 연유되었음을 否定할 수 없지만 그것은 例外的인 事例에 불과한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러한 예외적인 몇가지의 事例를 가지고서 경제적 이해 특히 금융적 이해가 1870년 이후에 전개되었던 제국주의적 확장의 普遍的 動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首肯하기 어려운 것이다.

## 6. 帝國主義의 動因과 民族主義

흡수를 비롯한 모든 帝國主義經濟理論家들은 다른 動因은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經濟的 利益이 제국주의의 主要動因이라고 주장한다.

(40) John Strachey, *The End of Empire*, 1959, p.97.

울프(L. Woolf)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수행한 歐洲列強國들의 제국주의는 유럽사람들의 信念과 欲求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신념과 욕구는 4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sup>(41)</sup> 첫째는 道德的 信念과 欲求, 둘째는 感情的 信念과 欲求, 셋째는 軍事的 信念과 欲求, 넷째는 經濟的 信念과 欲求인데 그 신념과 욕구는 제각기 제국주의정책의 특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네가지 신념과 욕구중에서 울프는 前三者보다 제국주의적 확장의 근본적인 동기로서는 經濟的 信念과 欲求를 강조하고 있다. 어떻던 울프는 제국주의의 동인을 복수적으로 보았고 인간의 신념과 욕구를 제국주의의 動因으로 간주한 것은 卓見이라고 할 수 있다.

로스토크(W.W. Rostow)는 「擴張과 貨幣獲得의 게임은 돈벌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權力, 冒險, 挑戰, 威信 등의 人間的 동기에 의해서 전개되었다」<sup>(42)</sup>고 설파하였다. 이와 같이 로스토크도 제국주의의 동인을 복수적으로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동인 못지 않게 다른 동인 말하자면 人間의 여러가지 신념과 욕구가 제국주의의 중요 동기임을 지적하였다.

19세기와 20세기초엽을 지배했던 歐洲列強國사람들의 信念을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파악하면 民族主義였다고 할 수 있다. 실로 당시 민족주의는 上層이나 下層을 가릴 것 없이 愛國的 스토리안으로 삼는데 아무런 회의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애국적인 大衆意識을 지배계급이 제국주의적 목적으로 전환시키기는 쉬웠던 것이다.

大衆들은 애국주의가 자기 마을이나 조국을 수호해야 한다는 통상적인 忠誠心에서 생긴 의식구조였기 때문에 大衆的 愛國主義가 제국주의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까지는 의식하고 있지 않았다. 제국주의는 大衆이 아니라 지배계층의 마음속에 있었던 信念이었던 것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지배계층의 신념이 대중들의 맹목적이고 애국적인 민족주의에 호소함으로써 민족주의가 그다지도 쉽게 「大衆運動으로서의 제국주의」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로 19세기에 전개되었던 「大衆運動으로서의 帝國主義」는 노동자계급의 지지까지 얻게된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던 것이다.<sup>(43)</sup> 汎게르만주의가 그러했고 汎스라브주의가 그러하였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애국적인 大衆意識을 당시 지배계급은 제국주의 목적으로 民族感情에 흡수시켰던 것이다.<sup>(44)</sup>

이렇게 볼 때 애당초 제국주의는 애국적 대중의식에 호소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大衆의 애국적 신념이었던 민족주의가 제국주의적 확장을 추진하는데 독특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否認할 수 없다. 여기에서 민족주의적 신념이 어느 동인 못지 않게 제국

(41) L. Woolf, *Economic Imperialism*, 1921, Chapter I.

(42) W.W. Rostow, *A Non-Communist Manifesto*, 1959. 李相球譯『反共產黨宣言』, p.55.

(43) George Liehtheim, *Imperialism*, 1971, p.90

(44) *Ibid.*, p.91.

주의의 중요한 動因이라는 命題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命題를 흡슨은 너무도 소홀히 하였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民族主義가 제국주의의 중요한 동인이라는 命題는 다음과 같은 리치데임(G. Lichtheim)의 견해를 인용해 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리치데임은 그의 저서 「帝國主義論」에서 中國의 위협가능성에 대한 바쿠닌(Bakunin)의 견해를 引用하고<sup>(45)</sup>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견해를 피력한 바쿠닌은 러시아革命이후에 러시아는 러시아의 목적을 위해서 中國革命을 도와줌으로서 러시아로 팽창하려는 中國人들의 亡靈을 물리쳤다고 생각하던 레닌의 제자들 보다도 훨씬 우수한 豫言者였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혁명(中國과 소련)의 목적도 민족적(傍點은筆者)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시아에서의 競爭的 帝國主義의 主導權을 장악하려는 투쟁은 있기 마련인 것이다.」<sup>(46)</sup>

#### IV. 結 論

本結論은 힐드하우스論文의 결론부분<sup>(47)</sup>을 添削한데 불과함을 미리 말해둔다. 前節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1870년부터 1914년간의 歐洲列強들의 제국주의적 확장의 동기가 歷史解釋으로서 흡슨의 이론은 부적당하다는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흡슨의 이론은 經濟理論으로서도 역시 만족할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과잉자본의 出口를 찾으려는 유럽의 投資家나 獨占家나 個人資本家들의 요구와 아프리카나 太平洋

(45) 리치데임이 인용한 바쿠닌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中國은 그 자체의 人口만도 4億을 헤아리는데 후자는 6억이라고도 한다. 이 방대한 人口는 中華領土만으로는 분명히 협소하기 때문에 나날이 늘어나는 인구는 일부는 오스트레일리아로, 일부는 太平洋을 건너 캘리포니아로, 또 다른 무리들은 東部와 北東쪽으로 이주해가는 추세를 억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타타리지방(Tartary)에서 우랄山脈까지 그리고 카스피海(Caspian)에 이르는 전 시베리아영토는 러시아사람의 것이 아닐 것이다. ……中央아시아에서 새로 획득한 것을 포함한 시베리아의 전영토를 침범할 뿐만 아니라 우랄산맥을 넘어서 불가까지 뻗어올 中國人무리들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東쪽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결정적인 위협은 바로 이것이다. 中國人 무리들을 알보는 것은 잘못이다. 중국인들은 막대한 人口를 가지고 있고 급격한 人口增加로 말미암아 끝내는 그들의 영토내에서만 살기는 어려운 처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존재인 것이다. ……최근에는 현대무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가 최정적인 計量文明의 公的結果인 유럽식 훈련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유럽식 훈련이나 새로운 武器와 현대전술의 습득은 중국인들의 원시적 야만성이나 人權鬭爭思想의 결핍이나 자유에 대한 自覺力의 결핍이나 복종에 대한 노예적 습성등과 결부해서 생각해 보면 ……中國人들은 소름끼치는 凶惡性을 저질 것만 같다. ……그러므로 東쪽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危險이 얼마나 가공스러운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Quoted by George Lichtheim, *Op. cit.*, pp.96-97.

(46) *Ibid.*, p.97.

(47) D.K. Fieldhouse, *Op. cit.*, pp.208-209.

지역에 대한 歐洲列強들의 제국주의적 분할과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1870년부터 1902년사이의 유럽의 제국주의적 확장과정을 하나의 不連續的인 현상으로 파악한 그의 이론은 그의 독특한 方法論에 따른다면 이해될 수도 있으나 뭐니뭐니해도 19세기 歷史發展의 연속성과 지난날의 歐洲帝國主義와의 類似性을 무시한 것은 홉슨제국주의론의 결정적인 誤謬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제국주의 확장과정의 거의 모든 면에서 1870년 이후 連續性의 단절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政治的 측면에 있어서의 수많은 새로운 지역의 합병이나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전세계에 걸친 歐洲의 商業 및 金融力의 급속한 확대는 1870년 이후 성격이 바뀐 것도 아니다. 19세기에 있었던 아프리카나 東洋에 대한 形式的 支配의 급속한 확대는 어느 면에서는 歷史發展의 연속성의 단절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斷絶은 그 근원에 있어 歐洲列強内部의 공포와 대립으로부터 파생된 정치적 현상이었지 홉슨이 말한 바와 같은 경제적 현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19세기 말엽이후의 제국주의운동의 주요한 특징으로서의 이데올로기적 신념이나 열정은 경제적 既得利權의 造作이 아니라 열렬한 애국적인 민족주의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는 점에서 홉슨의 命題는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帝國主義에 대한 通俗의 매력은 資本家들의 사악한 영향력 때문이기 보다는 그 고유한 大衆에의 매력에 기인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결론컨데 제국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帝國主義를 경제이론이나 金融資本主義의 성격과 같은 단순한 공리로 간단히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가장 현저한 형태로서의 제국주의는 政治的 현실에 뿌리박은 정치·사회학적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며 특히 愛國的 민족주의가 攻擊的 民族主義로 移轉되는 政治·社會學的 분석에 의해서만 보다 정확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